

취업모의 직업 특성이 양육행동과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others' Job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Behaviors and
Young Children's Motor,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이현정(Hyun Jung Lee)¹⁾

ABSTRACT

Using samples of working mothers with 0-to-47 month old children extracted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NLSY),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mothers' job characteristics on parenting behaviors and young children's motor,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1) job dissatisfact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development. (2) Working fewer hour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others' cognitively stimulating parenting behaviors. (3) Total earnings were a positive predictor of mothers' emotional support. (4) The availability of a flexible hour benefit was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cognitive stimulation level but the availability of a paid sick and vacation days combined benefit was negatively related to mothers' cognitively stimulating parenting behavior.

Key Words : 취업모(working mother), 직업 특성(job characteristics),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운동·사회·인지 발달(motor,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I. 서 론

1960년대 이후의 가장 큰 사회 인구학적 변화 중의 하나로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의 큰

증가세를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는 미국 노동시장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집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만 해도 3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 본 논문은 2007년도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¹⁾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yun Jung Lee, Baekseok University, Ahnseodong, Dongnamgu, Chun-Ahn city, Chungchungnam-do 330-704, Korea
E-mail : hjlee2003@bu.ac.kr

어머니의 1/3이 직업을 갖고 있었으나 1998년에는 그 비율이 2/3로 증가했으며, 2001년에는 이러한 어머니의 취업률이 56%에 달하였으며, 이들 중 약 70%는 주당 3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 S. Department of Labor, 2002). 이와 같은 경향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6세 미만의 유아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점차 높아져 최근 조사에 의하면 0~5세 아동 중 약 45%가 취업모의 자녀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00). 이러한 기혼여성의 취업은 일과 자녀양육이라는 이중 역할의 수행과 연관되어 있는데 자녀의 발달 과정에 있어 주양육자의 역할이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의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활동에 있어 이중 역할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기 시절의 두뇌 발달에 있어 생후 첫 3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고 이 시기 동안의 환경적 요소들은 아동의 이후 발달 궤적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Shonkoff & Phillips, 2000). 이러한 다양한 환경 요소들 중 부모의 역할은 아동의 성장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연령에 맞는 지적 자극과 정서적으로 지지적이고 반응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초기 아동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Thompson, 200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달 과정상 어머니의 양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어머니의 취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자녀의 발달에 주요 변수로써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문혁준, 2003).

기혼 여성의 취업과 아동 발달간의 관계에 관한 오랜 동안의 선행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결론은 어머니의 취업 그 자체가 아동발달에 긍정

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Harvey, 1999).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취업 유무 자체가 아닌 취업모의 직업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 발달간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둘을 연결하는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수입, 근무시간, 직업 만족도, 직업의 복잡성 정도, 정규/비정규 근무시간, 가족친화정책 여건 등과 같은 취업모의 직업 특성들이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에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다. 먼저,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아동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취업모의 직업 특성 중 수입(김재희 · 박경란, 2004; Blau & Grossberg, 1992; Jackson, 2003), 직업의 복잡성 정도(서윤신, 1993; Cooksey, Menaghan, & Jekielek, 1997; Parcel & Menaghan, 1994), 직업 만족도(유신희, 1986; Barling & Van Bart, 1984)는 아동의 인지·사회 발달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취업모 또는 부모의 비정규 근무시간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Bogen & Joshi, 2001; Han, 2002, 2005; Strazdins et al., 2004), 일부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비정규 근무시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Dunifon, Kalil, & Bajracharya, 2005).

한편, 직업 특성 중에서 근무시간과 아동 발달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근무시간이 긴 경우 아동의 인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Brooks-Gunn, Han, & Waldfogel, 2002) 아동의 행동상의 문제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Rogers, Parcel, & Menaghan, 1991)가 있는 반면, 근무시간은 아동의 인지 발달과 관련성이 거

의 없거나(Greenstein, 1995; Harvey, 1999) 전혀 없는 것(Blau & Grossberg, 1992)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다. 직업 특성 중 가족 친화적 정책의 이용 가능 여부는 주로 근로자와 관련된 변인(예를 들자면, 조직 몰입,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과의 관련성이나(이요행·방묘진·오세진, 2005; Raber, 1994), 일-가족 갈등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두는 방향(강혜련·임희정, 2000; 이세인·이숙현·권영인, 2007; Thomson et al., 1999)으로 선행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이러한 많은 연구들과 달리 가족 친화적 정책과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매우 드문 실정이다. Estes(2004)는 가족 친화적 정책의 실제 사용여부와 취업모의 양육행동,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취업모의 가족 친화적 정책의 사용여부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직업의 복잡성과 직업 만족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enaghan과 Parcel (1991, 1995)은 취업모의 직업이 복잡할수록 어머니가 아동에게 지적으로 자극적이고 따스한 반응과 정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혔으며, 이러한 정적 상관관계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김재희·박경란, 2004; Geschwender & Parcel, 1995; Raver, 2003).

반면에 그 외의 직업 특성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일관된 결과들을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모의 수입은 양육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결과(김재희·박경란, 2004; 박성연·임미리, 2002; Menaghan & Parcel, 1991)가 있는 한편, 또 다른 연구들은 수입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지지와 같은 좋은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Menaghan & Parcel, 1995). 이와 유사하게 근무시간과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양육행동이 근무시간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박성연·임미리, 2002; Menaghan & Parcel, 1991)도 있으나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근무시간이 긴 어머니의 경우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더 세심한 반응을 보이고, 덜 처벌적이며, 인지적으로도 더 자극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Brady-Smith, 2002; Huston & Aronson, 2005).

취업모의 직업 특성 중 정규/비정규 근무시간이나 가족 친화적 정책과 양육행동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5~10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Heyman과 Earle(200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낮 동안의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밤에 근무하는 것이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가족친화정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앞서 지적한 대로 가족 친화적 정책이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으며, 가족 친화적 정책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가족 친화적 정책의 실제 사용여부와 취업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본 Estes(2004)의 연구에서는 병가 휴가를 사용하는 어머니는 좀 더 따뜻하고 반응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인 반면, 탄력 근무 제도를 사용한 어머니는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모는 육아와 관련된 직장의 복지 여건이 좋은 경우 애정·적극적 참여 양육 행동을 많이 나타내고,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많을 때 합리적 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성연·임미

리, 2002). 이러한 결과들은 가족친화적 정책이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정생활을 늘 정적으로 예측하지만은 않는다는 것과 가족 친화적 정책이 양육행동의 다양한 측면에 각기 다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규명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양육행동과 아동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서적으로 반응적이고 지지적이며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어린 아동의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Jackson et al., 2000; Parcel & Menaghan, 1990, 1994; Waldfogel, Han, & Brooks-Gunn, 2002) 이러한 긍정적 양육행동들이 아동의 행동·사회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는 사실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양육행동과 아동의 초기 운동·사회·인지 발달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들은 수적으로도 많지 않으며 결과에 있어서도 일치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초기 운동(Goyen & Lui, 2002; Parks & Bradley, 1991), 혹은 운동·사회·인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Bradley et al., 2001)고 보고되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과 유아의 운동발달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Abbott et al., 2000).

마지막으로,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자 역할로 제시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들도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비정규 근무시간과 가족 친화적 정책과 같은 직업 특성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행동은 근무시간과 아동의 인지 발달(Brooks-Gunn, Han, & Waldfogel, 2002)과 소득

과 아동의 인지·사회 발달(Parcel & Menaghan, 1994)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 만족도(Geschwender & Parcel, 1995)와 직업의 복잡성(Parcel & Menaghan, 1990)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취업모의 양육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발달과의 관계에 있어 연구의 초점을 단순한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업 특성의 고려 및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아동 발달을 연결하는 기제의 규명으로 확대시킨 것은 지식의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비정규/정규 근무시간, 복수 직업 등과 같은 직업 특성들은 취업모의 이중역할 적응과 연관이 있으며 가족친화정책과 같은 특성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동발달과 양육행동을 돕는 지지 요소가 될 수 있다(박성연·임미리,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 고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특성들은 아동 발달과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관련지어 전혀 혹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취업모의 직업 특성이 아동발달과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둘째, 생애의 출발점인 초기 아동기의 운동·사회·인지 발달은 아동의 생애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Ramey & Ramey, 1998)이 있으며, 초기 영유아기는 그 이후의 아동기와 비교하여 주양육자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주양육자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때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아동발달간의 관계는 아동기 후기의 그것과 다를 것이라는 점이 예측된다고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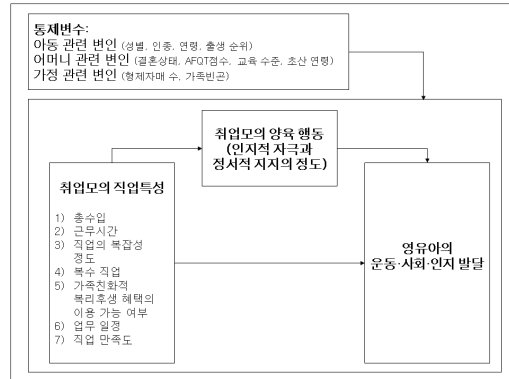
다. 그러나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아동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영유아보다 연령층이 높은 아동을 표본으로 사용하였고,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0~47개월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과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제한된 수의 선행 연구도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대상이 미국의 취업모와 그들의 자녀들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여러 어려움¹⁾을 간과할 수 없으나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공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이들을 돕는 개입 서비스와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국내연구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체계 가운데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예를 들면, 가족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취업모의 직업특성과 같은 외체계와 아동의 양육,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1) 예를 들어, 사회문화적 차이, 연구결과를 한국의 취업모에게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문제 2> 취업모의 직업 특성은 취업모의 양육행동(인지적 자극, 정서적 지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간의 관계는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1996, 1998, 2000, 2002년도 미국 청년 종단 조사 연구(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 NLSY)와 NLSY의 아동 자료로부터 추출하였다. NLSY는 전국 50주에서 다단계 층화 표집 방법을 통해 선출된 1979년 당시 14~21세였던 미국 전 지역을 대표하는 12,686 젊은이를 대상으로 오늘날까지 수행되어지고 있는 연구로 취업, 교육, 빈곤 상태 등과 같은 대상자에 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1989). 본 연구에 사용된 또 하나의 자료인 NLSY 아동

자료는 NLSY 대상자로부터 태어난 아동의 아동 발달에 관한 일련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생후 3년 동안 영유아의 발달 및 어머니의 양육 행동 조사라는 점에서, 연구대상자는 0~47개월의 자녀를 둔 취업모로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직업 특성 변수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고 0~47개월의 자녀를 둔 취업모 중 직업 특성 변수를 포함한 본 연구에 필요한 모든 변수들의 값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집단 1 $N=699$, 집단 2 $N=613$).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어머니의 직업 특성으로 총수입, 근무시간, 직업의 복잡성 정도, 복수직업, 직업 만족도,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 혜택의 이용 가능 여부, 업무 일정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NLSY 면접에 사용된 문항들로 측정 되었다. 이러한 직업 특성 변수들은 NLSY의 두 자료(NLSY 주 자료, NLSY 아동 자료)에서 얻어 지게 되는데 각 자료에 따른 변수들의 측정 방법의 차이와 두 자료로부터 얻은 변수들을 통합해서 분석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²⁾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을 출처

2) 예를 들면, 두 자료로부터 얻은 변수들을 통합해서 분석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두 번째 집단에 포함된 변수들에서는 다수의 결측치가 관찰되는 것으로 인한) 연구대상의 수적 감소, (다수의 직업 특성이 한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 될 경우로 인한) 다중 공선성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NLSY 주자료에서 추출된 직업 변수의 경우 아동자료에서 추출된 직업 변수와 달리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아동발달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즉, 이러한 직업 변수들의 경우

자료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즉 아동 자료에서 얻어진 총수입, 근무시간, 직업의 복잡성 정도, 복수 직업 등의 변수들은 첫 번째 집단에 포함시켰고, NLSY 주 자료에서 얻어진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 혜택의 이용 가능 여부, 업무 일정, 직업 만족도 등의 변수들은 두 번째 집단에 포함시켰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모의 **총수입**은 아동발달 측정이 있기 이전의 1분기 동안 모든 직업으로부터 얻어진 소득으로 측정되었다. **근무시간**은 일반적인 고용 유형을 반영하고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던 기준 (Parcel & Menaghan, 1990, 1994)인 주당 근무시간으로 측정하였는데, 주당 근무시간 35시간 이상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이하와 21~34시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직업의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던 Parcel과 Menaghan(1990, 1994)의 측정 방법이 사용되었다. NLSY 설문에는 직업의 복잡성을 직접 측정하는 항목이 없는 관계로 각 개인이 NLSY 설문에서 응답한 직업은 먼저 1970년 미국 인구센서스 직업코드(U. S. Census three-digit occupation code)에 따라 코딩되고 이러

NLSY가 취업모에 대한 설문 시기와 아동발달 측정 시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 발달 측정이 취업모 설문보다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취업모의 직업 특성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시간적 의미에서의 논리성이 성립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술된 문제점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NLSY 주자료에서 추출된 이러한 직업 변수들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Estes, 2004; Han, 2005)을 볼 때 아동자료에서 추출된 직업변수와는 다른 별개의 집단에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되며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직업 변수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직업 코드는 다시 직업 명칭 사전(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s)을 기반으로 한 Roos와 Treiman(1980)의 주관적 복잡도(substantive complexity) 점수에 매칭 되었다. 점수의 범위는 0~10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직업이 복잡한 것을 의미한다. **복수 직업**은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가질 경우 1, 하나의 직업을 가진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다.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 혜택의 이용 가능 여부도 어머니의 직업 특성으로 포함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장에서 제공 되어 지고 있는 복리후생 혜택 중 선행 연구에서 부모로서의 기능과 적응에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제시된(Galinsky et al., 1996) 세 종류의 혜택, 즉 탄력 근무시간,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보조되는 보육관련 서비스, 병가와 유급휴가가 고려되었다. 각각의 혜택이 이용 가능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업무 일정**과 관련하여 NLSY는 응답자의 업무 일정을 규칙 주간 근무, 규칙 야간 근무, 교대 근무, 분할 근무, 비정규적 일정, 기타로 묻고 있는데 규칙 주간 근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표준 업무 일정으로 정의하였다. **직업 만족도**는 NLSY에서 4점 척도(1="매우 좋아함", 2="보통", 3="다소 싫어함", 4="매우 싫어함")로 조사되었는데 직업을 매우 좋아하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만족도 "보통"과 "다소 또는 매우 싫어함"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은 MSD(Motor and Social Developmen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MSD 척도는 영유아의 생후 3년(0~47개월) 동안의 운동, 사회, 인지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48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48개의 문항 중 아동의 연령에 맞는 15개 문항을 작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MSD 문항이 측정하는 영유아의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영유아의 신체 조절 능력 또는 일상생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예를 들면, 0~개월 아동의 경우 엎드려 있을 때 고개를 돌리는 것이 가능한가, 12~19개월 아동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 있는지 등). 사회발달을 측정하는 항목들로는 자신에 대한 인식 정도, 타인에 대한 반응 여부 등이 있으며 인지발달을 측정하는 항목들로는 인식 가능한 언어 구사 여부, 수 세기, 문장 구사 능력, 나이와 성별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이 있다. MSD 척도 문항의 특수성으로 인해 Cronbach's Alpha계수는 산출되지 않았지만 초기 아동 발달 측정도구로서의 가치는 다양한 예비 평가 결과들에 의해 지지된 바 있다(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1989).

3) 매개변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본 연구의 매개변수로 Bradley와 Caldwell(1984)이 개발한 가정환경 측정도구(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 HOME)를 수정한 단축형 HOME-SF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어머니의 응답과 조사자의 관찰 방법을 통해 가정에서 자녀에게 제공되는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HOME은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그 신뢰성과 타당도가 입증되었다(Baker et al., 1993)(본 연구에서 Cronbach's 알파=.80). HOME의 인지적 자극을 측정하는 항목들로는 보육서적/잡지의 수, 독서 빈도, 자녀의 학습 관련 활동

에 대한 어머니의 참여 여부, 장난감의 수/종류, 박물관 방문, 취미 활동, 과외 활동, 물리적 환경의 상태 등이다.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는 항목들로는 가족과의 식사, 친지들과의 접촉, 비행 상황에서의 훈육 방법, 신체적 처벌 여부 등과 어머니의 격려, 언어적 반응, 아동에 대한 수용성 등을 관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직업 특성이 어머니의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지지의 양육행동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HOME의 전체 점수 대신 인지적 자극을 측정하는 항목과 정서적 지지를 측정하는 항목의 점수를 별도로 산출하여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의해 아동 발달과 어머니의 직업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아동, 어머니, 가정에 관련된 변수들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먼저, 아동의 성별은 남(1), 여(0)로 측정하였고, 인종은 히스패닉, 흑인, 백인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백인을 준거집단으로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령은 개월 수로, 출생 순위는 첫째(1), 그 외(0)로 측정하였다.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들로는 결혼상태, AFQT 점수, 교육 수준, 초산 연령 등의 변수들이 사용되었다. 결혼 상태는 결혼, 미혼, 그 외(별거, 이혼, 미망인, 결혼하였으나 배우자 부재)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결혼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더미 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인지능력을 나타내는 AFQT 점수는 연속변수로,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1, 고등학교 미만=0, 초산 연령은 20세 미만=1, 20세 이상=0으로 변환하였다. 가정 변수들로 형제자매 수는 연속변수로, 가족빈곤은 욕구소득비 1을 기준으로 1미만인 경우를

빈곤가구(1), 그 이상을 비빈곤 가구(0)로 측정하였다. 빈곤 변수의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부조(AFDC나 TANF) 또는 Food Stamps의 수여 여부를 사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공공부조나 Food Stamps를 받은 경우=빈곤가구 1, 그렇지 않은 경우=비빈곤 가구 0으로 코딩) 이러한 대체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이 변수를 회귀분석 모형들에 포함시켰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자료 분석에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 통계치를 사용하였고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직업 특성 변수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고 이에 따라 자료의 분석도 각각의 집단(N=699, 613)에 대해 행해졌다. 또한 회귀분석은 아동, 어머니, 가정에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먼저, 집단 1의 취업모의 직업 특성 변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어머니들(64.09%)이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 시간 21~34시간과 20시간 이하의 각각 19.47%와 16.44%로 나타났다. 직업 복잡성 점수의 평균치는 4.98, 총수입은 \$6526.09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한 직업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8.81%). 집단 2의 직업 특성 변수들과

관련하여서는 대다수의 어머니들(74.87%)이 표준 업무일정에서 일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어머니들(48.86%)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매우 좋아한다고 답한 사람은 39.92%, 다소 또는 매우 싫어한다고 답한 사람은 11.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 혜택의 이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병가와 유급휴가(75.26%), 탄력 근무 시간(57.29%), 보육관련 서비스(1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에 있어 보육이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수가 35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나 보육관련 서비스의 복리후생 혜택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른 혜택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 보육이 중요한 관심사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기술 통계치 결과 각 집단에 속한 연구대상자는 매우 유사한 일반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백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집단 1 83.19%, 집단 2 81.79%), 흑인(10.91%, 12.24%), 히스패닉(5.90%, 5.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첫 자녀가 아니었고(76.90%, 75.25%) 남아와 여아가 매우 균등한 수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평균 나이는 두 집단 모두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26.48개월, 26.07개월).

두 집단의 유사성은 어머니 변수들에서도 나타났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결혼을 했으며(83.26%, 82.41%), 유사한 AFQT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53.91, 52.88). 또한 어머니들의 절대 다수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92.42%, 92.78%) 첫 출산 연령이 2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89.27%, 88.52%). 본 연구 대상자들은 가정과 관련된 변

수들에서도 유사성을 나타내었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욕구 소득비 1미만인 빈곤가구는 전체의 12% 남짓에 불과하였고(11.82%, 12.86%) 공공부조나 Food Stamps 수여 여부로 대치된 빈곤 변수로 보았을 때도 빈곤인 가구는 두 집단 모두에서 전체의 약 12%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동 외 형제자매는 약 2명으로 나타났다(2.25, 2.21).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양육행동에 있어서도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어서 유사한 인지적 자극 HOME 점수(1001.19, 995.96)와 정서적 지지 HOME 점수(1003.43, 1002.14)를 보였고 아동들도 MSD 점수에서 유사한 발달의 수준을 나타내었다(99.99, 100.2).

2.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과의 관계

<표 1>은 어머니의 직업 특성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예상과는 다르게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에 포함된 직업 특성 변수들 중 어머니의 직업 불만족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영유아의 아동발달을 나타내는 MSD 점수를 부적(否的)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5.016$, $p<.01$). 즉, 취업모가 직업에 불만족할수록 자녀들의 MSD 점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외에 남아($b=4.673$, $p<.001$, $b=4.394$, $p<.001$), 첫 자녀($b=3.287$, $p<.05$, $b=3.557$, $p<.05$), 미혼과 결혼을 제외한 그 외의 결혼상태($b=3.877$, $p<.05$, $b=3.627$, $p<.05$) 등의 변수들이 두 집단 모두에서 MSD 점수를 정적(正的)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과의 관계

변수	집단 1(N=699)	집단 2(N=613)
	운동·사회·인지 발달 (MSD 점수)	운동·사회·인지 발달 (MSD 점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취업모의 직업특성 변수(집단 1)		
직업의 복잡성	-285	
총수입	.000	
복수 직업	.883	
20시간 이하의 근무시간	1.426	
21~34시간의 근무시간	.438	
취업모의 직업특성 변수(집단 2)		
탄력 근무시간 혜택의 이용가능		2.077
보육 서비스 혜택의 이용 가능		2.409
병가와 유급휴가 혜택의 이용 가능		-2.203
비표준 업무 일정		.901
직업 만족도 “보통”		-.792
직업 만족도 “다소 또는 매우 싫어함”		-5.016**
아동변수		
히스패닉	-2.842	-2.820
흑인	-.118	.323
남아	4.673***	4.394***
연령	.040	.043
첫자녀	3.287*	3.557*
어머니 변수		
미혼	1.814	1.881
미혼과 결혼 외의 결혼상태	3.877*	3.627*
AFQT점수	.010	.011
고등학교 이상 교육수준	-1.217	-.638
십대 출산	.074	.015
가정변수		
형제자매 수	-.164	.230
가족빈곤	-2.129	-3.451
대치된 가족빈곤(결측)	1.841	1.510
R^2	.060	.082
Adjusted R^2	.035	.053
F	2.38 **	2.80 ***

* $p < .05$ ** $p < .01$ *** $p < .001$

2. 직업 특성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직업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먼저, 첫 번째 집단에 포함된 직업 특성 변수 중 주당 근무시간이 어머니의 인지적 자극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주 35시간 이상 근무에 비해,

20시간 이하 근무시간($b=69.792, p<.001$)과 21~34시간 근무($b=49.488, p<.001$)는 어머니의 인지적 자극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HOME 점수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주당 3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어머니들에 비해, 그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좀 더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

<표 2>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변수	집단 1(N=699)		집단 2(N=613)	
	비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인지적 자극	정서적 지지	인지적 자극	정서적 지지
취업모의 직업특성 변수(집단 1)				
직업의 복잡성	5.092	2.462		
총수입	.001	.002*		
복수 직업	32.680	.194		
20시간 이하의 근무시간	69.792***	31.042		
21~34시간의 근무시간	49.488***	8.235		
취업모의 직업특성 변수(집단 2)				
탄력 근무시간 혜택의 이용가능			26.586*	-1.430
보육 서비스 혜택 이용 가능			7.380	9.263
병가/유급휴가 혜택 이용 가능			-44.708**	-4.647
비표준 업무 일정			-20.176	-24.239
직업 만족도 “보통”			7.222	-10.659
직업 만족도 “다소 또는 매우 싫어함			-22.364	15.278
아동변수				
히스패닉	-7.826	13.152	-2.388	4.931
흑인	-3.145	-38.953*	-2.626	-44.315*
남아	20.448	24.806*	19.624	15.786
연령	-.236	-.287	-.391	-.464
첫자녀	-23.125	-10.552	-23.587	-4.444
어머니 변수				
미혼	-4.245	-70.100**	-12.794	-75.621**
미혼과 결혼 외의 결혼상태	-51.926**	-49.246**	-54.721**	-42.509*
AFQT점수	.456	.549*	.546*	.577*
고등학교 이상 교육수준	24.734	26.023	17.181	26.212
십대 출산	-19.340	5.265	-16.198	5.214
가정변수				
형제자매 수	-31.882***	-7.829	-28.394***	-.161
가족빈곤	-38.524*	-.510	-63.227**	-7.641
대치된 가족빈곤(결측)	5.240	1.398	3.579	1.928
R^2	.174	.138	.138	.126
Adjusted R^2	.152	.115	.111	.098
F	7.93***	6.05***	5.02***	4.49***

* $p<.05$ ** $p<.01$ *** $p<.001$

다. 그러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주당 근무시간은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과 관련하여서는 어머니의 총수입($b=.002, p<.05$)이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HOME 점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총수입이 높을수록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에 포함된 직업 특성 변수들 중에서는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 혜택의 이용 가능 여부가 인지적 자극 HOME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탄력 근무시간의 이용 가능여부($b=26.586, p<.05$)가 인지적 자극 HOME 점수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 내에서 탄력 근무시간제도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이용 가능한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좀 더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가족 친화적 복리후생 혜택의 이용 가능 여부와 어머니의 인지적 자극 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예상과는 달리 병가/유급 휴가 이용 가능 여부($b=-44.708, p<.01$)는 인지적 자극 HOME 점수를 부적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병가와 유급휴가가 이용 가능한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들과 있을 때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취업모의 정서적 양육행동과 관련하여서는 <표 2>에서 보듯이 두 번째 집단에 포함된 직업 특성 변수들은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변수들과 관련하여서는 두 집단 모두에

서 흑인($b=-38.953, p<.05, b=-44.315, p<.01$)은 정서적 지지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아($b=24.806, p<.05$)는 첫 번째 집단에서만 정서적 지지 점수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변수 중 미혼($b=-70.100, p<.01, b=-75.621, p<.01$)과 결혼과 미혼을 제외한 그 외의 결혼상태($b=-49.246, p<.01, b=-42.509, p<.05$)는 두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결혼상태($b=-54.721, p<.01$)는 두 번째 집단에서 인지적 자극 양육 행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AFQT 점수($b=.549, p<.05, b=.577, p<.05$)는 두 집단 모두에서 정서적 지지 HOME 점수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정적 관계는 두 번째 집단에서 인지적 자극 점수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다($b=.546, p<.05$). 가족 변수 중 자녀수는 두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의 인지적 자극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31.882, p<.001, b=-28.394, p<.001$) 가구 빈곤($b=-38.524, p<.05, b=-63.227, p<.01$) 또한 인지적 자극 점수를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양육 행동과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과의 관계

양육행동과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두 집단 모두($b=0.020, p<.001, b=.019, p<.001$)에서 인지적 자극 HOME 점수가 MSD 점수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은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반

<표 3>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과의 관계

변수	집단 1(N=699)	집단 2(N=613)
	운동·사회·인지 발달 (MSD 점수)	운동·사회·인지 발달 (MSD 점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양육행동		
인지적 자극 HOME 점수	.020***	.019***
정서적 지지 HOME 점수	.007	.006
아동변수		
히스패닉	-2.690	-3.242*
흑인	.467	.111
남아	4.134***	3.825***
연령	.048	.048
첫자녀	3.809*	4.223*
어머니 변수		
미혼	2.514	2.947
미혼과 결혼 외의 결혼상태	5.291***	5.145*
AFQT점수	-.006	-.006
고등학교 이상 교육수준	-2.253	-.750
십대 출산	.572	.367
가정변수		
형제자매 수	.562	1.083
가족빈곤	-1.432	-2.411
대치된 가족빈곤(결측)	1.668	1.436
R^2	.108	.100
Adjusted R^2	.089	.077
F	5.53 ***	4.40 ***

* $p < .05$ ** $p < .01$ *** $p < .001$

면에, 정서적 지지 HOME 점수는 MSD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남아($b=4.134, p<.001, b=3.825, p<.001$), 첫자녀($b=3.809, p<.05, b=4.223, p<.05$), 미혼과 결혼을 제외한 그 외의 결혼상태($b=5.291, p<.001, b=5.145, p<.01$) 등의 변수는 두 집단 모두에서 MSD 점수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히스패닉 아동($b=-3.242, p<.05$)은 두 번째 집단에서만 MSD 점수를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간의 관계에서 양육 행동의 매개효과

양육 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발달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지지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집단에 포함된 직업 특성 변수 중 어떤 변수도 영유아의 발달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후속 분석은 행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직업 불만족이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 행동은 영유아 발달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직업 불만족 변수는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더 이상의 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영유아의 운동·사회·인지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발달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결과를 통해 살펴 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직업 불만족도만이 영유아의 발달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불만족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의 MSD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유아의 발달에 있어 취업모의 직업 특성 중 정신적, 심리적 측면이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업 만족도가 아동의 인지·사회 발달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유신희, 1986; Barling & Van Bart, 1984)는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직업 만족도 변수를 제외하고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아동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취업모의

직업 특성들(Jackson, 2003; Han, 2005; Parcel & Menaghan, 1994)이 아동발달을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되지 않는 본 연구결과는 이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불일치는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에 있어 연구대상과 측정도구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업모의 직업 특성의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3~8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직업의 복잡성과 같은 직업 특성의 경우 부모가 복잡한 직업에서 얻은 심리적 능력(예를 들면, 자율성)이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영유아기를 지나 부모와의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아동발달을 예측하는 변수로 밝혀졌다는 점은 연구대상의 연령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에 고려되어야 할 것을 보여 준다고 사료된다.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전반적으로 한 측면에서의 아동발달만이 측정되어졌다면 본 연구는 운동·사회·인지 측면에서의 전반적 아동발달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취업모의 직업 특성들의 영유아 발달에 대한 낮은 관계성과 더불어 회귀분석 결과에서의 낮은 R^2 의 원인 또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 번째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영유아의 발달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MSD가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얼마나 타당하고 포괄적인가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즉, 여러 결과들에 의해 MSD

가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의 초기 아동 발달 측정 도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Bradley et al., 2001; Garret et al., 1994), MSD의 문항들은 아동의 사회·인지 발달보다는 주로 운동 능력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기관리 능력(예를 들면,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변수들의 측정 방법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취업모의 주당 근무시간은 연속변수로 처리되지 않고 범주화되어 측정되었는데(예를 들면, 주당 근무시간 35시간 이상, 20시간 이하, 21~34시간), 다른 범주를 사용했을 경우 취업모의 근무시간과 아동 발달 간에 좀 더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변수들의 측정 방법의 다양성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취업모의 근무시간과 아동 발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Harvey, 1999).

둘째, 취업모의 근무시간이 어머니의 인지적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는 어머니들에 비해, 그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좀 더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자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의 양이 자녀의 인지 자극 활동, 언어 발달,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견해(Huston & Aronson, 2005)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근무시간과 양육행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Menaghan과 Parcel(1991)의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아동에게 인지적으로 더 자극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Brady-Smith(2002)의 결과와는 불일치한다. 이러한 근무시간은 본 연구에서 취업

모의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이 취업모의 시간적 여유 정도와 관련되기 보다는 그 외의 다른 직업 특성들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과 관련하여서는 어머니의 총수입이 높을수록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의 수입은 양육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결과(김재희·박경란, 2004; Menaghan & Parcel, 1991)와는 일치하지 않는 반면 수입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인다(Menaghan & Parcel, 1995; Raver, 2003)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어머니의 수입과 정서적으로 지지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 간의 이러한 정적 관계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재정적 보상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Meyer & Cancian, 1998) 이러한 심리적 안녕이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행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 있어 어머니의 총수입과 양육행동의 관계성에 있어 흥미로운 결과는 총수입은 취업모의 인지적 양육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의 연령에 맞는 인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어머니의 인지적 양육행동은 많은 경우 재정적 요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소득 수준이 가정에서 아동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 활용되는 소재의 질과 양(예를 들자면, 서적의 수와 아동의 인지를 자극하는 교육적 효과의 정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Guo와 Harris(2000)가 지적한 대로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요소가 재정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HOME의 어머니의 인지적 자극 점수를 측정하는 일부 항목들(예를 들면, 아동을 위해 책을 읽어 주는 횟수 등)은 재정적으로 덜 풍족한 어머니라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근무 시간이 적은 취업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지적 자극 양육행동을 제공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견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넷째, 가족친화정책의 이용 가능 여부가 어머니의 인지적 자극과 관련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탄력 근무시간제도가 이용 가능한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좀 더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가 병가 휴가를 이용 할 수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취업모의 스트레스 완화나 물리적·질적인 면에서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취업모가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을 제공하는 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병가휴가의 이용 가능 여부는 어머니의 인지적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가족 친화적 정책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정생활에 늘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 않으며(Estes, 2004) 가족 친화적 정책이 양육행동의 다양한 측면에 각기 다른 영향력을 행사한다(박성연·임미리, 2002)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족친화정책의 이용 가능 여부는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직장의 복지 여건이 취업모의 이중역할 수행에 대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부모 역할을 돕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지지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상과는 달리 가족친화정책이 취업모의 정서적 지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족친화정책의 이용 가능 여부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예를 들자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등)이 이들의 관계에서 더 중요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정책은 이용 가능 여부에서 더 나아가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충분한 복지수준일 때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 특성과 영유아의 발달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는 양육행동은 근무시간과 아동의 인지 발달(Brooks-Gunn, Han, & Waldfogel, 2002)과 소득과 아동의 인지·사회 발달(Parcel & Menaghan, 1994)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이러한 결과는 직업 만족도와 직업의 복잡성이 아동의 인지 발달에 취업모의 양육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Geschwender & Parcel, 1995; Parcel & Menaghan, 1990)된 것과는 불일치를 보이는데 이는 표본의 연령과 측정도구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Geschwender와 Parcel(1995)의 연구에서는 5~8세의 아동들이 연구 대상이었으며 영유아의 전반적 발달을 측정한 본 연구와 달리 인지적인 발달만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취업모의 직업 불만족도가 영유아의 발

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모가 직업 불만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직장 내에서의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무 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로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포괄적 서비스의 도입과 확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또한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 직업 만족도가 낮은 취업모를 위한 상담역할 뿐 아니라 직업 불만족의 구체적 원인들(예를 들자면, 업무 자체, 직장 동료, 보수 등)을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과 취업모의 의사소통의 통로로서의 적극적 역할이 취업모의 직업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어머니의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가 영유아 자녀에게 반응적이고 따뜻한 긍정적 양육행동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재정적인 면이 중요함을 재시사하는 것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최저 임금제 인상과 같은 취업모의 임금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저소득층 취업모들을 위해 재정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력이나 프로그램의 구축·확장도 필요하다.

셋째, 어머니의 소득과 양육행동의 관계성에 있어 소득이 취업모의 인지적 양육행동을 유의

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자녀들에게 인지적으로 자극적인 양육행동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재정적인 요소가 꼭 절대적이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더 나아가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행동을 돕기 위한 재정적 측면의 정책과 더불어 어머니의 영유아 인지 발달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 자녀의 인지 발달을 위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은 최적의 영유아 발달의 고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본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변수들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연구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선행 연구에서 초기 영유아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보육 프로그램의 질이나 어머니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NICH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와 같은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발달과 관련된 변수들을 보다 다양하게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접근은 취업모의 직업 환경과 영유아의 발달간의 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데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효과를 밝히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기법이 후속 연구에서 사용된다면 취업모의 직업 환경과 영유아 발달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가족 친화적 정책이 근로자의 심리적 안녕과 직장-가정의 양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조직 내 정책의 시행 여부 자체 뿐 아니라 직장 상사 및 동료의 지원과 같은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Estes, 2004). 또한 선행연구(Thompson et al., 1999)는 가족 친화적 정책의 시행 여부와 정책의 실제 사용 여부를 분리해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화적 정책의 이용가능 여부만을 살펴 보았기 때문에 가족 친화적 정책과 관련된 포괄적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친화적 정책과 관련된 변수를 확대 포함시키고 시행 여부와 사용 여부를 분리 측정 하는 후속 연구는 가족 친화적 정책이 취업모 아동의 발달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버지의 직업 환경이 아동 발달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직업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 만족도와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행연구 결과(Barling, 1986)와 양 부모의 직업적 특성이 아동 양육의 가치와 행동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Parcel & Menaghan, 1994)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직업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혜련 · 임희정(2000). 성취동기와 가족친화제도가 기혼 여성의 직장-가정 갈등과 경력 몰입에 미치는 조절 변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5(2), 1-14.
- 김재희 · 박경란(2004).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5(0), 295-319.
- 문혁준(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 비교연구. *아동학회지*, 24(5), 59-75.
- 박성연 · 임미리(2002).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57-68.
-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 통계연보*.
- 서윤신(1993).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학력이 아동의 태도와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세인 · 이숙현 · 권영인(2007). 가족의 지원 및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가 사무직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29-57.
- 이요행 · 방묘진 · 오세진(2005).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직몰입, 직장만족, 이직의도, 그리고 가족만족에 미치는 영향 : 직장-가정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18(3), 639-657.
- 유신희(1986). 어머니의 직업과 유아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Abbott, A., Barlett, D., Fanning, J., & Kramer, J. (2000). Infant motor development and aspects of the home environment. *Pediatric Physical Therapy*, 12, 62-67.
- Baker, P. C., Keck, C. K., Mott, F. L., & Quinlan, S. V. (1993). *NLSY child handbook : A guide to the 1986-1990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child data*(Rev.ed.). Columbus, OH :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 Barling, J. (1986). Fathers' work experiences,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behaviour.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7(1), 61-6.
- Barling, J., & Van Bart, D. (1984). Mothers' subjective employment experiences and the behavior of their nurse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7, 49-5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au, F. D., & Grossberg, A. J. (1992). Maternal labor supply and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 474-481.
- Bogen, K., & Joshi, P. (2001, September). *Bad work or good move : The relationship of part-time and nonstandard work schedules to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in working poor familie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Working Poor Families : Coping as Parents and Workers, Bethesda, MD.
- Bradley, R. H., & Caldwell, B. (1984a). The HOME inventory and family demographic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315-320.
- Bradley, R. H., Corwyn, R. F., Burchinal, M., McAdoo, H. P., & Coll Garcia, G. (2001). The home environments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art II : Relations with behavioral development through age thirteen. *Child Development*, 72(6), 1868-1886.
- Brady-Smith, C. (2002). How does early maternal employment affect young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Examining the roles of state welfare policy, maternal well-being, and paren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umbia, New York, NY, USA.
- Brooks-Gunn, J., Han, W., & Waldfogel, J. (2002).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cognitive outcomes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3(4), 1052-1072.
-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1989). *NLSY Child handbook*. Columbus, OH : The Ohio State University.
- Cooksey, E., Menaghan, E., & Jekielek, S. M. (1997). Life-course effects of work and family circumstances on children. *Social Forces*, 76(2), 637-667.
- Dunifon, R., Kalil, A., & Bajracharya, A. (2005). Maternal working conditions and child well-being in welfare-leaving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1(6), 851-59.
- Estes, S. B. (2004). How are family-responsive workplace arrangements family friendly? Employer accommodations, parenting,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well-being. *The Sociological Quarterly*, 45(4), 637-661.
- Galinsky, E., Bond, J. T., & Friedman, D. E. (1996). The role of employers in addressing the needs of employed par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52, 111-136.
- Garrett, P., Ng'andu, N., & Ferron, J. (1994). Poverty experiences of young children and the quality of their home environments. *Child Development*, 65, 331-345.
- Geschwender, L. E., & Parcel, T. L. (1995). Objective and subjective parental working conditions' effects on child outcomes : A comparative test.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5, 259-284.
- Goyen, T., & Lui, K. (2002). Longitudinal motor development of "apparently normal" high-risk infants at 18 months, 4, and 5 years. *Early Human Development*, 70, 103-115.
- Greenstein, T. N. (1995). Are the "most advantaged" children truly disadvantaged by early maternal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16, 149-169.
- Guo, G., & Harris, K. M. (2000). The mechanisms mediating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intellectual development. *Demography*, 37(4), 431-447.
- Han, W. (2002). Nonstandard work schedules and child cognitive outcom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Committee on family and Work Policies. Irvine, CA.
- Han, W. (2005). Nonstandard work schedules and child cognitive outcomes. *Child Development*,

- 76(1), 137-54.
- Harvey, E. (1999).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early parental employment on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35*, 445-459.
- Heymann, S. J., & Earle, A. (2001). The impact of parental working conditions on school-aged children : The case of evening work. *Community, Work and Family, 4*(3), 305-25.
- Huston, A. C., & Aronson, S. R. (2005). Mothers' time with infant and time in employment as predictors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arl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6*(2), 467-482.
- Jackson, A. P. (2003). Mothers' employment and poor and near-poor African-American children's development : A longitudinal study. *Social Service Review, 77*(1), 93-109.
- Jackson, A. P., Brooks-Gunn, J., Huang, C., & Glassman, M. (2000). Single mothers in low-wage jobs :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s. *Child Development, 71*(5), 1409-1423.
- Menaghan, E., & Parcel, T. L. (1991). Determining children's home environments : The impact of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current occupational and family cond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17-431.
- Menaghan, E., & Parcel, T. L. (1995). Social sources of change in children's home environments : The effects of parental occupational experiences and family cond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69-84.
- Meyer, D. R., & Cancian, M. (1998). Economic well-being following an exit from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479-492.
- NICHD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5), 860-879.
- Parcel, T. L., & Menaghan, E. G. (1990). Maternal working conditions and children's verbal facility : Study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from mothers to young childre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 132-147.
- Parcel, T. L., & Menaghan, E. G. (1994). Early parental work, family social capital, and early childhood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972-1009.
- Parks, P., & Bradley, R. (1991). The interaction of home environment features and their relation to infant competence. *Infant Mental Health, 12*, 3-16.
- Raber, M. J. (1994). Women in the workplace : Implications for child care. *Employee Assistance Quarterly, 9*(3-4), 21-36.
- Ramey, C. T., & Ramey, S. L. (1998). Prevention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 Early interventions to improve cognitive development. *Preventive Medicine, 27*, 224-232.
- Raver, C. C. (2003). Does work pay psychologically as well as economically? The role of employment in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and parenting among low-income families. *Child Development, 74*(6), 1720-1736.
- Rogers, S. J., Parcel, T. L., & Menaghan, E. G. (1991). The effects of maternal working conditions and mastery on child behavior problems : Study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al control.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145-64.
- Roos, P. A., & Treiman, D. J. (1980). Worker functions and worker traits for the 1970 U. S. Census classification. In A. R. Miller, D. J. Treiman, P. S. Cain, & P. A. Roos (Eds.), *Work, jobs, and occupation*(pp.336-89).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 Shonkoff, J. P., & Phillips, D. A. (Eds.). (2000). *From neurons to neighborhoods :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 Strazdins, L., Korda, R. J., Lim, L.L-Y., Broom, D. H., & D'Souza, R. M. (2004). Around-the-clock : Parent work schedules and children's well-being in a 24-h econom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9, 1517-27.
- Thompson, R. A. (2001). Development in the first years of life. *The Future of Children*, 11(1), 21-33.
- Thompson, C. A., Beauvais, L. L., & Lyness, K. S. (1999). When work-family benefits are not enough : The influence of work-family culture on benefit utilization, organizational attachment,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392-415.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2).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families in2001*. Washington,DC : Author.
- Waldfoegel, J., Han, W., & Brooks-Gunn, J. (2002). The effects of early maternal employment on child cognitive development. *Demography*, 39, 369-392.

2008년 10월 31일 투고, 2009년 5월 3일 수정
2009년 5월 7일 채택